

# '무주상보시'로 따뜻한 세상을...

니까야서 길을 묻다 1. 부처님이 제시한 길

## 깨달음의 세계, 우리 삶과 밀접

영화 '인 투 더 스펀'을 보면,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이 25년 뒤에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역경을 헤쳐 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지만, 지난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학생들의 인터뷰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25년 뒤 자신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70대 중반이 되어 버린 늙은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상상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25년 뒤'라는 생각이 가져온 두려움 때문에 일상이 즐겁고 기쁘지 않아서 문득 생각이 진행되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보았다. 25년 뒤가 아니라 '25년

인용한 내용은 초기불교 경전의 하나인 <상윳따 니까야> '갈대의 꿈'에 나오는 구절로써, 과거의 사실에 빠져 있거나 바라고 있는 미래의 일에 미리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를 지켜간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잡아함> 제95 '아련아(阿練若)' 경에 따르면, '바른 지혜로써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흠여지지 않도록) 묶어두고 주의력을 불러일으켜 지금 여기에 지속되도록 하는 것(正智繫念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용문에서 '현재를 지켜간다'는 말은 자신의 사고 작용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 되니 이것은 바로 불교의 명상 수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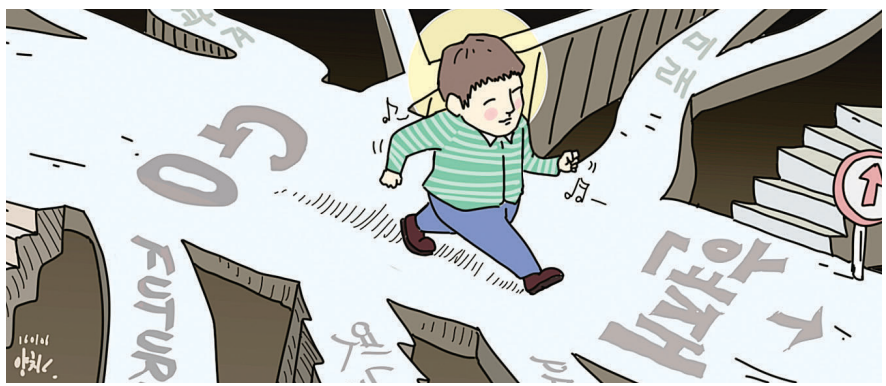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전의 나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가고 있는 20대 젊은이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리들이 갖가지 상황을 겪게 되면서 떠올리는 생각이란 녀석은 이토록 허술하다. 25년이라는 삶의 과정을 앞으로 돌리면 늙은이의 영상이 떠오르지만 뒤로 돌리면 젊은이를 만나게 되니 말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의 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양면성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바라던 대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즐거워 하다가 바라지 않던 것이 나타나면 괴로움에 빠져 허덕이는 일상의 모습이 되기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각이 라는 작용은 한쪽 방향으로 달려 나가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방향이나 속도감에 맞춰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을 형성(業)'하게 되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에 애태우지 않고 현재를 지켜 가면, 그것에 의해 열광빛은 밝게 되네." (SN 1 p.5)

사유의 작용이 지금 여기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로 달려 나가고 있는 그 순간을 받치려면 다음 수순은 욕망과 감정이 개입되는 꼴을 목격하기 쉽다. 생각의 작용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생각은 감정에 끌려 다니게 되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일이나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러한 상태를 '탐욕'과 '번뇌'라는 말로써 그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늘 발휘되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녀석이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태도로부터 불교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 속에 등장하는 갖가지 불교 교리(敎理)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저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 혜전 스님 (제주 보덕사 주지)

울곧게 살아온 수행자의 마음은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늘 한결같다.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40여 년을 묵묵히 소외된 이웃들의 그림자가 돼 준 제주 보덕사 주지 혜전 스님. 그 공로를 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013년 10월 제 34회 감만덕상(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 제주도민이 존경하는 의녀 감만덕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감만덕상은 1794년 제주도에 태풍과 흉년이 겹치면서 대기근이 일어나자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인 후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천여 명의 목숨을 살린 의녀 감만덕을 업적에 잇고자 제정한 상이다. 나라남도 하기 어려운 구휼(救恤)을 일개 평민인 감만덕이 사재를 털어 나눔을 실천했듯 혜전 스님도 40여년이란 세월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세음보살로 화현해 시대를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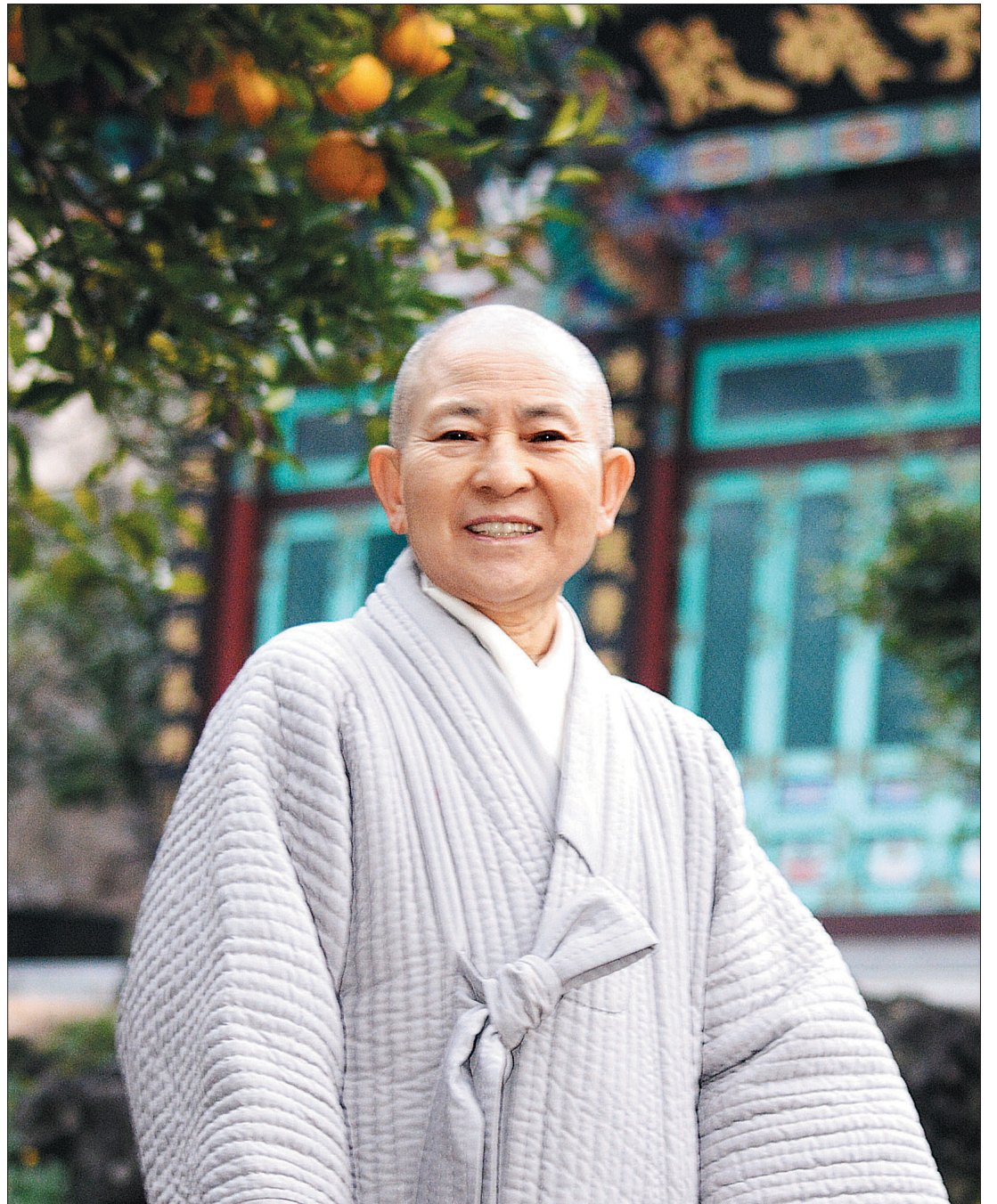
"지금은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20~30년 전만해도 손수레는 그 부류에서도 상류층이었죠. 특히 그 당시에는 복지혜택이 지금과 같지 않은 때라 장애인들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폐지 줍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작지만 요구르트, 우유 등을 사서 빨대를 꼽아 드리면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 생각했었지요"

혜전 스님은 지난 1975년 제주 보덕사 주지로 취임하며 매일 정기적으로 도내 복지시설을 비롯해 병원,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30년 이상 자비행을 펼쳐 왔다. 고통받고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든 서슴치 않고 달려가길 주저하지 않았다.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주상 보시로 실천하는 자비행은 스님의 봉사 활동을 더욱 값지게 했다. 모래알이 쌓여 태산을 만들듯 한 순간에 큰 재산을 쾌척하기 보다는 늘 주변에 도와야 할 어르신들이 있으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드려야 혜전 스님은 작성이 풀린다. 그 마음씨가 도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상으로 답례가 돌아온 셈이다.

혜전 스님은 "불교계 시설로 제주양로원이 있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였죠. 요즘은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엔 천으로 해결할 때였습니다. 치매 앓는 어르신들의 경우 인분을 여기 저기 묻혔는데 그거 치우려고 고생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웃음)"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로서 할 일을 다했을 뿐이라는 혜전 스님은 "만덕 할머니가 어려운 도민을 구휼했듯 수행자로서 도민의 정신적 치유와 물질적 보시 등을 통해 남은 생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살핌의 삶을 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 원력도 피력했다.

감만덕상 수상 4개월 뒤인 2014년 2월에 혜전 스님은 상금 500만원 전액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대한



혜전 스님은 ... 1983년 동학사 숭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94년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 200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 경영자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2008~2009년에는 제주시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는 등 자원봉사의 이론을 겸비했다. 스님은 지난 1975년 도남 보덕사 주지에 취임 후 2006~2015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1990년 안봉려관 후손 문도 대표, 보덕사 마야봉사회 지도법사, 보덕사 염불봉사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불교 조계종 산하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에게 전하며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성금은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개발을 추진 중인 농업기술학교 건립봉사에 전달됐다.

봉사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봉사단체 창립의 필요성을 느낀 스님은 지난 2001년 '자리아타의 보살도와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덕사 신행정체인 마야봉사회를 창립한다. 이후 스님은 관음사 산하 제주양로원·요양원, 태고복지재단 산하 제주태고원 등 교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중식제공, 금일봉 전달 등 봉사활동 규모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혜전 스님은 수행자 신분으로 어르신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수록 염불기도를 통해 마음까지 치유해 드린다. "신도들이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따뜻한 음식도 차려줄 수 있고, 성금도 조금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으니 흐뭇하죠. 무엇보다 신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기뻐했습니다."

마야봉사회는 창단 10년 째인 지난 2011년 6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단체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혜전 스님은 봉사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지난 2008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데 이어 2009년에는 제주전문대학(현 제주국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2급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을 취득했다. 또한 마야봉사회는 지난 2009년 일일식당 운영 수익금 1천1백만 원을, 2014년 4월 일일찾집 운영수익금 1천 만원 등을 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승배설전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범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x 세로5.7cm x 두께2.5cm)+4GB불경SD카드+1200AM배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동합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네 평안을 위한 기도
  4. 밤이 깨우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맑아는 곳에
  12. 반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살 때는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고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는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부운 참언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천연 1
  22. 광명천연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선도제일 노래
  31. 창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경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후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선도제일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본

# “일손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갈 터”

“신도들과 합심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일일식당을 열죠. 신도들에게 힘이 부치고 부담 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신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항상 봉사 수익금 일부는 남겨놓지 않고 모두 사용하죠. 수익금이 혹 모자라면 더 없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불자의 도리이고, 지속적인 보살행을 통해 사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야 봉사회는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혜전 스님은 현 신도들 뿐 아니라 지금은 연로해 요양원 등에 거거하는 전 신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마음을 쓴다. 혜전 스님은 정기적으로 옛 신도들과도 가끔 조우해 부처님 가르침을 교감한다. 10여년 전 부터는 특히 인간광생 일환으로 치매 등으로 요양시설이나 혼자지내는 옛 신도들을 직접 찾아 나서 위로해주고 봉사한다.

“신도님들이 치매 등으로 인해 사찰에 올 수 없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가끔 우리를 알아봐 주실 때 그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이지요. 그날 행거는 빵이랑 음료수를 직접 입안에 넣어 드리면 신도님들이 눈물 흘리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찾아간 신도들도 가슴 뭉클하답니다.”

또한 혜전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 소임을 맡은 지난 10여년 동안 도내 비구니스님들과 매년 연말이면 이웃들에게 ‘자비의 연탄’을 전달한다. 비구니회는 연탄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병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경전을 독송하며 어르신들이 병고서 조속히 완쾌되기를 부처님께 기원 한다.

혜전 스님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웃들을 보듬기 위해 성품을 직접 전달하게 됐다”고 자비나눔 실천 배경을 설명했다.

혜전 스님은 지난 2003년 전국비구니회 중앙운영위원으로 추대된 뒤 2006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장 소임도 겸임했다. 이어 2007년 중앙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원만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님은 제주불교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감안해 종단을 초월, 도내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해 화합과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혜전 스님은 지난 2013년 백흥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 제주상영도 적극 추진했다. 당시 영화 ‘길 위에서’는 제주서 상영권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혜전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국비구니회 제주지회 주관 하에 제주상영을 결정한다. 혜전 스님의 선견이 있었던 걸까. 영화는 사흘 동안 12차례 제주화문화예술센터에서 상영되는 동안 제주불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소위 ‘대박’을 쳤다. 매회 상영마다 줄줄이 매진사례가 이어졌다.

“사흘 동안 어린이와 학생들을 비롯해 4500명이 영화에 그려진 스님들의 출가의 인연과 수행 과정을

해 부산, 통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자료수집에 나섰다. 비로소 통영의 한 사찰서 봉려관 스님이 화주한 행화를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난 2006년 6월 1일 서울 비구니회관에서 열린 ‘한국비구니 수행전통포럼’에서 발표한 ‘제주불교 증흥과 봉려관 스님’이었습니다.”

이 포럼서 혜전 스님은 1918년 3·1운동 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봉려관 스님이 깊숙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을 제기 했다.

봉려관 스님을 통한 제주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는 ‘봉려관 선양회’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는다. 지난 2010년 11월 출범한 봉려관 선양회는 도내 사부대중이 종파를 초월해 스님의 업적과 행적을 널리 알리겠다고 천명한다.

혜전 스님은 “봉려관 스님은 200년의 명맥불교를 마감하고 제주 땅에 불심을 심고 가꾼 것은 물론 법정사 항일항쟁 주역인 스님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참된 애국자요, 선각자”라며 “하지만 열반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 스님의 이름마저 잊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20년 전부터 한용운 스님의 선양사업을 펼치며 만해대상 시상을 비롯해 장학·포교·청소년문화·학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봉려관선양회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업적을 널리 홍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양회 창립 후 2011년 8월 봉려관선양회는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를 초청, ‘봉려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12년 7월 관음사 경내에서는 봉려관 스님이 관음사 창건을 위해 기도한 해월굴에 스님의 행적비를 세웠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관음사비림향향단의 불을 통해 봉려관 스님의 항일항쟁 업적을 기린 ‘칸타타(교성곡)’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혜전 스님의 끈질긴 노력 덕분일까, 도내의 많은 사부대중이 이제는 봉려관 스님을 제주불교의 증흥조요, ‘관음사’ 개산조로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혜전 스님은 조선중기 200여년 간 끊긴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킨 안봉려관 스님같이 남성보다 더 강직한 성품을 닮았다. 봉려관 스님이 수행자를 뛰어넘어 제주여성 특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치열한 삶을 추구한 것처럼 혜전 스님도 안봉려관 스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며 대중들에게 의지처가 돼주고 있다.

김주일부장 ·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 소외된 이웃 향한 자비행

40여년간 양로원 · 복지관서 봉사  
2013년 김만덕상 봉사부문 수상

## 제주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2010년 봉려관선양회 출범으로 탄력  
봉려관 스님 조명 세미나 및 행적비 건립

보면서 불교와의 선근 씨앗이 싹트으리라 믿어요. 또한 타종교에 이해심을 넓히기 위해 천주교의 수녀님과 원불교의 교무님 등을 초대, 영화를 통해 상대의 종교를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혜전 스님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주불교 증흥조 봉려관(蓬廬觀, 1865~1938) 스님에 대한 재조명이다.

남성중심인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봉려관 스님은 1990년대 이르기까지 ‘스님’이란 호칭보다 ‘화주’, 심지어 ‘무당’이라 불렸다. 봉려관 스님의 5대 법손인 혜전 스님은 이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훼손된 명예를 되찾는데 헌신한다.

“봉려관 스님의 명예 회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처럼 어려웠습니다. 봉려관 스님의 부족한 문헌기록을 발굴해 이를 증명해야 했죠. 봉려관 스님의 문헌 기록과 증언자를 찾아 20여년 전 부터 일본을 비롯

## 전법일기

### 군중병, 수행납자의 또 다른 이름

“저 자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법사님께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군법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중병에게 들었던 한마디다. 당시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던 한 군중병의 말이었기에 필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 군중병이 전역할 때 까지 군중병으로 임무를 마쳤지만 당시 군중병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군중병이야말로 병사들이 맡게 되는 보직 중 취사병, 행정병과 함께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 하나다. 물론 야간 경계근무에 편성되지 않으며 선후임간 갈등도 적다. 또 군기가 있는 생활관에서 지내지도 않는다는 환경 속

중병이 있다.

그 군중병은 함께 복무하는 동안 성품이 완만하지 않아 오히려 군승법사들이 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해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전역을 앞두고 영창에 가게 됐다. 그 내막을 살펴보았다.

“군중병이 왜 영창에 가게 됐나?”  
“스님, 매번 법당 근무 후 부대 내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들을 괴롭혔습니다. 법당에 애들이 안가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법당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 등을 후임들에게 푼 것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늘 부지런히 법당 정리를 하며 수행도 했던 군중병은 전역 후에도 역시나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빛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승법사와 함께 살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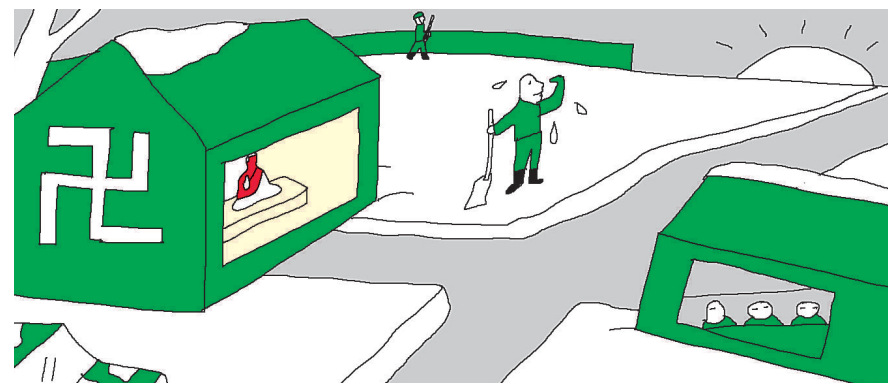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에 지낸다.

군중병들은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마치 수행납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전역하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오해도 받게 된다.

군중병 생활을 비유하면 사찰의 행자들과의 삶과 비슷하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준비하고 범종을 치고, 아침공양을 하고 나면 뒷정리를 해야 한다. 법당청소를 시작으로 요사채를 정리해야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넓은 도랑을 도맡아 청소하고, 법당 행정업무를 비롯해 법회 시에는 보조업무도 진행한다. 그렇게 애를 쓰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시선은 “군중병은 편하지 않아?”다. 특히 전역하기 직전까지 선임대우 등이 없기에 모든 것을 직접해야 한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군중병이 편하다고 생각하기에 군중병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심사숙고해 선발을 해도 수행자 같은 삶을 1년 넘게 살다보면 드러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함께 있었던 군중병 중 너무나 즐겁게 활동한 이들도 있지만 전역 때까지 내내 인내로서 바라보았던 이도 있다. 그 중 가장 가슴이 아픈 기억으로 남은 군

이 되고 전역 후에도 좋은 인연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인연을 만드는 도반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승법사들은 군중병 선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군에서도 군중병 선발 기준을 높이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신학생이 아니면 군중병으로 선발되지 않는다. 신학생 정도가 돼야 종교시설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불교 군중병은 불교학부생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군에 오는 스님들도 많지 않아 선발시 고민할 것이 많다. 일반 불자들이 대부분 군중병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군포교에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군중병이 편할 것이라 선임견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당사자의 적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순간에도 각 법당에서 군승법사들을 보좌하며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중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의 무사 전역을 바란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2013년 김만덕상 수상후 우구민 前도지사와 기념촬영



2010년 11월 봉려관선양회 제막식 모습.



아름다운 동행에 김만덕상 상금 전액을 기부한 혜전 스님.

##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